



2021년 다해 대림판공문제집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대림 제1주간 | 표징

대림 제2주간 | 세례자 요한

대림 제3주간 | 예언자적 삶

대림 제4주간 | 성모 마리아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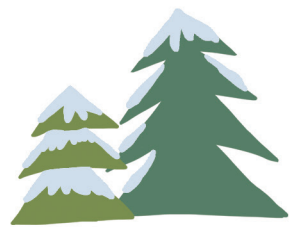


권·두·언

교구 복음화위원회에서는 대림 시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2021년 대림판공문제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집의 제목은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따라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고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을지라도, 작은 불씨와 같은 희망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집은 그동안 발행되어 온 대림판공문제집의 완성본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수원교구 복음화국, 2013년} chapter 2. 예언자의 삶^{70~129쪽}》의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대림 제1주간에는 세상 마지막 날의 ‘표징’과 시대적 징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림 제2주간에는 새로운 예언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 제3주간에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바라본 ‘예언자적 삶’에 대해서 고찰하고, 대림 제4주간에는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해 볼 것입니다. 본 문제집의 주요한 인물인 세례자 요한과 성모 마리아는 모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에게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고, 성모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이 둘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무나 갈망했지만 뵈지 못했던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함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향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을 향한 희망은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렇듯 세례자 요한과 성모 마리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얻고, 내게 힘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써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은총의 대림 시기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 권두언

● 대림 제1주간 | 표징

- 02 복음 말씀 묵상 | 루카 21,25-28,34-36
- 03 말씀 나누기
- 04 신앙 배움터
- 06 대림 제1주간 판공문제

● 대림 제2주간 | 세례자 요한

- 08 복음 말씀 묵상 | 루카 3,1-6
- 09 말씀 나누기
- 10 신앙 배움터
- 12 대림 제2주간 판공문제

● 대림 제3주간 | 예언자적 삶

- 14 복음 말씀 묵상 | 루카 3,10-18
- 15 말씀 나누기
- 16 신앙 배움터
- 18 대림 제3주간 판공문제

● 대림 제4주간 | 성모 마리아

- 20 복음 말씀 묵상 | 루카 1,39-45
- 21 말씀 나누기
- 22 신앙 배움터
- 24 대림 제4주간 판공문제



표징

복음 말씀 묵상 | 루카 21,25-28.34-3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5**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26**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8**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뒤흔들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35**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36**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사람들이 불신에 떨어질 때 하늘에 나타날 표징들

많은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질 때, 불신의 구름이 밝은 신앙을 가릴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제 믿음에 따라 거룩한 태양(말라 3,20 참조)이 밝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늘의 해를 바라볼 때도, 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흐리게 보는 사람과 밝게 보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빛도 믿는 이의 경건함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 육체의 악덕이 거룩한 빛을 가로막으면, 거룩한 교회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빛의 밝음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박해 때는 이 세상 삶에 대한 애착이 하느님의 빛을 차단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 암브로시우스 「루카 복음 해설」 10,36-37. ([교부들의 성경 주해 신약 IV 루카 복음서] 463-464쪽)

말씀 나누기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교회는 대림 제1주일을 시작으로 대림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날, 곧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바다에는 거센 파도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징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표징을 두고도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물, 명예, 권력을 조금만 잃어버려도 그 어느 때보다 아파합니다. 사실 재물, 명예, 권력은 나 자신이 아니라서 아파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미 그것들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늘의 세력들

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아집과 욕심으로 몰고 가는 하늘의 세력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인 하느님을 따르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야만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신의 옛 모습에서 벗어나,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희망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표징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그 표징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

신앙 배움터



시대적 징표에 대한 식별과 해석의 원리



「사목 현장」 4항은,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교회 본연의 임무이며, 시대의 징표를 해석하는 기준은 복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과 현상이 시대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세계의 중요한 특징, 역사의 흐름 등을 나타내는 것이 시대의 징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징표는 개인적인 관심을 넘어 보편적인 차원에서 교회와 인류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구체적인 큰 사건을 포함합니다. 이 가운데 인간의 자유와 품위의 증진,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과 결실들은 긍정적인 징표에 속합니다. 부정적인 징표는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징표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을 배제한 문화적 퇴화, 불의한 사회구조, 죄의식의 상실, 이혼과 낙태의 급증, 폭력과 죽음의 문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통찰하여 그것이 현재와 미래 삶을 밝혀 주기 위한 것임을 식별하는 데에 복음을 해석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에 견주어 시대의 징표를 조명함으로써 그 징표가 인간적 가치, 정신적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사목 현장」 4항 참조). 또한 ‘신앙’은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는 징표들을 감지하는 초자연적 감각과 시야를 제공하여 세상의 일들을 하느님의 섭리와 연관 지어 바라보게 해줍니다(요한 9,39; 12,37 참조). 한편 시대적 징표를 해석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혼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비추임에 힘입은 교도권의 도덕적 성찰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01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날, 곧 재림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❶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싸여 오셔서, 역사 안에서 밀과 가라지처럼 함께 자란 악에 대한 선의 결정적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 ❷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셔서 마음속에 감추어진 의향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그의 행업에 따라, 그리고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 ❸ 해와 달과 별들에 나타나는 표징과 바다의 거센 파도 소리는 재림의 날에 닥칠 물리적 현상을 넘어, 하느님이 모든 창조물의 미래이며 최종 목표이자 구원의 희망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드러낸다.
- ❹ 재림의 날까지 인간의 참행복은 유보되었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철저한 극기와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하늘나라를 성취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02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세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❶ 재림의 날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복음의 정신에 따라 하느님에게서 희망을 찾고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
- ❷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일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하찮게 여기고, 고행을 동반한 관상 생활 안에서 세상의 모든 번뇌를 벗어던지는 일에만 매진한다.
- ❸ 계명을 엄격히 준수해야만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으니, 교회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웃들에게는 따끔히 충고하여 잘 지키도록 이끌어 준다.
- ❹ 내일이 곧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본당의 전례와 활동에 참여하기 보다는 열심히 교우들과 비밀리에 만나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세례자 요한

복음 말씀 묵상 | 루카 3,1-6



1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라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2 또 한나스와 카아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3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4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5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6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라

사도로 선택받은 요한은 거룩한 예언자 전통의 마지막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는데,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라시든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율법의 그늘에서 끌어내고, 흐릿한 모습들을 버리고, 더 이상 사악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느님의 길을 곧게 내십시오. 선(善)으로 인도하는 길은 항상 곧고 부드럽고 편한 반면, 굽은 길은 그 길을 가는 이들을 사악함으로 끌어내립니다.

-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 「루카 복음 주해」 6. ([교부들의 성경 주해 신약 IV 루카 복음서] 128쪽)

말씀 나누기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자 인권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첫 예언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닦아 놓습니다. 그리하여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굽은 데는 곧게 되고 거친 길은 평탄해집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며, 또 한편으로는 힘든 가운데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했으나, 세례자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직접 뵈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이전의 예언자들과 구별되

는 정말 복된 이였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진실로 예수님을 뵈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을 비우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인다면 상처 입은 우리 마음속 골짜기는 자연스럽게 메워지고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 배움터



신약에 등장한 새로운 예언자

신약에 들어와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에 새로운 예언이 선포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하느님께서 하실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일은 다른 예언자들의 역할과 동일했습니다.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그를 예언자로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사람들이 기다렸던 엘리야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 예언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 17,9-13; 루카 1,17 참조).



예수님 역시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자렛 회당에서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당신도 받았음을 밝히셨습니다(루카 4,16-22 참조). 신약성경 저자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대목(이사 7,14-15; 52,13-53,12 참조)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예언의 말씀’으로 간주하여, 예언되었던 새로운 세상의 희망과 이에 관한 기대가 예수님의 삶과 활동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마태 1,23; 2,5-6; 3,3 참조). 결국 신약성경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동시에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며(1베드 1,10-11 참조),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묵시 19,10)”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대림 제2주간 | 판공문제

01

- 1
하느님의 말씀

2
예수 그리스도

3
세례자 요한

4
이사야

02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라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의 아들 요한에게 내려다.

- 1 호세아
 - 2 즈카르야
 - 3 엘리야
 - 4 오바드야

03

- 1 세례자 요한
 - 2 예수 그리스도
 - 3 엘리야
 - 4 이스라엘 민족

04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닦아 놓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림 시기를 지내며 미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❶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보속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
- ❷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푼다.
- 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용기의 은총을 청한다.
- ❹ 판공성사만으로는 지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어렵기 때문에, 나 스스로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청한다.

05

예언자로서의 세례자 요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❶ 신약에 들어와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에 새로운 예언이 선포된다.
- ❷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불렀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하느님께서 하실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일은 다른 예언자의 역할과 전혀 달랐다.
- ❸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엘리야임을 알아보셨지만,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알아보지 못했다.
- ❹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예언적 사명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예언자적 삶

복음 말씀 묵상 | 루카 3,10-18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10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13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14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 적절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 세리나 군사들뿐 아니라 시골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모두가 가진 것을 없는 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없이 여기는 마음은 모든 덕의 완성이며, 어떤 덕보다 앞에 두어야 하는 완전한 덕입니다.

...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동정의 크기는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혼자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 암브로시우스 「루카 복음 해설」 2,77.([교부들의 성경 주해 신약 IV 루카 복음서] 132쪽)

말씀 나누기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자 자선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정해진 것 외에 필요 이상으로 더 요구하지 말며, 남의 것을 갈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윤리적 권고는 물의 세례를 받는 이들이라면 꼭 해야 하는 다짐이자, 뒤이어 예수님께서 주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따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느님께서 그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단 하나, 바로 선악과에 집착합니다. 선악과 하나만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당신의 전부인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복음의 세례자 요한은 본인을 두고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 고백하며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

습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가운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талан트를 알아보려 애쓰고, 이것을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신앙 배움터



교회의 신앙 유산에 충실한 예언직



예언자의 예언이 과연 하느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1테살 5,19-20 참조). 교회는 이 기준이 교회의 유산에 충실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정통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며, 정통 신앙에 부합하는 예언이 아니면 결코 하느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예언직 수행자는 교회의 판단에 순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라는 말씀대로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서 그리스

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영으로 예언한 것처럼 신약의 백성도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은 교회가 예언직을 수행하며 진리를 믿거나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할 수 있으며, 오류 없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0-11).”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직 수행이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언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는 모범을 통해 세상에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예언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하느님 백성은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언직 수행자는 그 시대의 문제를 깊이 들여야 볼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고 자기 이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01 세례자 요한의 예언적 삶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처럼 참된 메시아였지만, 겸손의 표양을 보이므로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
- 2 요한은 '주님의 길'을 마련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의 첫 예언자이다.
- 3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군중들에게 외쳤던 윤리적 권고는 예수님께서 주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이다.
- 4 요한의 세례가 하는 역할은 미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세례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02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과 ()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03 루카 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04 성령과 예언직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❶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영으로 예언한 것처럼 신약의 백성도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한다.
- ❷ 성령께서는 직접 세상에서 예언직을 수행하신다.
- ❸ 진리의 성령은 교회가 예언직을 수행하며 진리를 믿거나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신다.
- ❹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오류 없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

05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언직을 수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❶ 하느님 백성은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 ❷ 하느님의 말씀에 힘입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
- ❸ 예언직 수행자는 동시대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신과 자기 이웃을 잘 이해해야 한다.
- ❹ 가능한 알아듣기 힘든 이상한 언어와 상징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

성모 마리아

복음 말씀 묵상 | 루카 1,39-45



39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마리아의 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 루카 1,46-51

말씀 나누기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태중에 모신 채로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세례자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은 성령에 가득 차 기쁨으로 인사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기뻐 뛰놀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갖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 요셉의 입장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우리는 굳이 많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마리아의 상황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을까요? 또 그 희망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다. 자신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고, 평생 동정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을 아들 예수님만을 위한 성전으로 가꾸어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를 신앙의 모범이자 교회의 어머니로서 특별히 공경하며 그분께 전구를 청합니다.

사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을 꺾고, 하느님의 뜻을 맞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피땀을 흘리며 변민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참다운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임을 믿고 희망하였기에, 당장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유롭게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 나아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가장 순수한 믿음을 실현하신 분으로 공경합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예수님께서서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명과 그 안에 담겨진 믿음을 묵상하며, 곧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 배움터



믿음의 순종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94항; 「교회 헌장」 56항 참조).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동정 잉태를 모든 인간적 이해력과 가능성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업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약혼자 마리아에 대해서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마태 1,20).”라고 알려줍니다. 교회는 여기서 하느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약속, 곧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이사 7,14 참조)고 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97항 참조).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며, ‘평생 동정’을 찬미합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자 구원의 협조자

“동정 마리아께서는 성부의 뜻과 성자의 구속 사업과 성령의 모든 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로써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가 되시고, ‘교회의 전형(typos)’이 되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67항).”

“은총의 계획 안에 있는 마리아의 모성은 주님 탄생의 예고에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십자가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셨던 그 동의에서부터 모든 뽑힌 이들의 영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십니다. ...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십니다(『교회 헌장』 62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969항).”



대림 제4주간 | 판공문제

01 자신을 반갑게 맞아준 친척 언니 엘리사벳 앞에서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팔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내 ()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02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닌 마리아가 보여준 삶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
입니까?

- ❶ 마리아도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것
이란 천사의 말을 듣고 도망치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했다.
- ❷ 예수님의 잉태부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탄치 않았던 삶에도 불구하고 온 생애에
걸쳐 하느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 ❸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는 죄로 인한 슬픔에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조차 슬프지 않은 척을 했다.
- ❹ 헤로데의 박해를 비롯한 갖은 어려움과 아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종종 하느님을 원망하
기도 하고, 왜 그때 천사의 말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답했는지 후회했다.

03

마리아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겸손은 마리아의 노래에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 생각이 ()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04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성모 마리아 관련 교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하느님의 어머니
- ② 평생 동정
- ③ 성모 승천
- ④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

05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 ②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후에도 성모 마리아의 구원 임무는 지속된다.
- ③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에 대하여 믿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동등하다.
- ④ 성모 마리아께서는 끊임없이 전구하심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



2021년 다해 대림판공문제집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발행일 2021년 11월 8일
 발행인 이용훈
 편집인 이용기
 발행처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정자동 578)

편 집 수원교구 사목연구소
 전 화 031-458-4327
 F A X 031-458-7224
 E-mail pastor@casuwon.or.kr

디자인 · 인쇄 하상출판사
 전 화 031-243-1880(대)



이 책의 본문용지는 수원교구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봉헌”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 본 출판물에 대한 사항은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로 사전 문의 바람. 모든 내용의 임의 변경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 ※ 본 출판물에서 인용한 『교부들의 성경 주해』 번역의 저작권은 분도 출판사에 있습니다.

성명(세례명)

전화번호

본 당

구역 · 반